

◆ 미 수은, 對터키 발전설비 수출 관련 노르웨이 ECA(GIEK)와 1,480만 달러 규모의 공동 보증 제공

미 수은은 미국과 노르웨이 수출업체들의 터키에 대한 발전설비 수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노르웨이의 ECA(GIEK)와 공동으로 1,480만 달러의 장기수출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. 동 보증액에는 설비수입액 외에도 수입국에서 소요되는 조달비용과 프로젝트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된다.

GE Packaged Power 등 미국과 노르웨이의 수출자들이 터키의 Bis Energy 발전소에 대해 가스터빈 발전기 및 관련 설비를 판매하는 동 프로젝트의 보증대출기관은 First International Bank이며, 미 수은은 동 거래 중 노르웨이 수출자의 부보분(550만 달러)에 대해 GIEK의 재보

증을 받게된다.

이와 같은 타국 ECA와의 공동 파이낸싱을 통해 미국의 수출자들은 다국적 국제 거래 참여의 기회를 갖게 되며, 외국의 고객은 미 수은 앞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미 수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협조지원까지 처리하는 이른바 one-stop-shop 방식을 이용하게 되므로 보다 간편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.

터키는 미 수은의 최대 지원국 중 하나로 현재 총 익스포저는 33억 달러이며, 지난 회계연도(FY2002)중 2억 8,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지원한 바 있다.

【워싱턴주재원】